

[MLB]"오심 줄이자" 메이저리그 비디오 판독 대폭 확대

등록 2014.01.17 12:08:09 | 수정 2016.12.28 12:09:27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메이저리그(MLB)가 올해부터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AP통신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1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구단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파라다이스 밸리에서 열린 구단주 회의에서 올해 정규리그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 실시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심판노조도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메이저리그 전 경기에서 새로운 비디오 판독이 실시된다.

메이저리그는 북미의 메이저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늦은 2008년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다. 당시에는 홈런 여부를 판단하는데만 비디오 판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3개 판정에 관해 비디오 판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 판정의 90% 정도가 모두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초 비디오 판독 대상이었던 홈런 여부를 포함해 인정 2루타·팬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포스 아웃 플레이·태그 플레이·외야에서 페어 또는 파울 판정·타자 몸에 맞는 볼·베이스에서 아웃 또는 세이프 판정 등을 모두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판정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은 MLB 사무국 본부에 위치한 리플레이 센터에서 이뤄진다.

본부에서 비디오 판독 심판조 4명이 비디오를 판독하고 판정을 결정한다. 심판들은 경기장에서 본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비디오 판독 심판조의 결정에 따라 판정한다. MLB 사무국은 비디오 판독 심판 인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MLB 사무국은 각 구장에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각 구장의 카메라 위치와 앵글은 모두 같다.

각 팀 감독들은 경기마다 한 번씩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수 있다. 비디오 판정을 통해 판정이 뒤집힌다면 이후에 한 차례 더 판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심판의 판정이 옳았다면 이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없다.

조 토레 MLB 수석 부사장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경기의 흐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LB 사무국은 7회 이후에는 주심만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심판의 권위도 어느 정도 보호했다.

덕아웃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지만 감독이 비디오 판독 신청을 위해 영상을 볼 수 있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버드 셀릭 MLB 커미셔너는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는 정말 큰 사건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셀릭 커미셔너는 재임 기간 중에 이룬 일 가운데 이번 비디오 판독이 몇 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 순위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를 지지해온 토니 라루사 전 감독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비디오 판독 확대 시행을 실시했다"며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경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토레 부사장은 홈에서 포수와 주자가 충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선수노조와 MLB 사무국 대표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